

1990년대 이후 중국 당대 성장소설에 나타난 가족결핍과 그 서사적 대응방식

김 봉 연
(숭실대학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1990년대 이후 발표된 余華의 『在細雨中呼喊』(1993), 蘇童의 『城北地帶』(1994), 王剛의 『英格力士』(2004)에 나타난 가족결핍과 그 서사적 대응방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소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인 결핍된 가족은 존재의 부재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 기능과 역할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결핍을 야기하는 원인은 작품마다 서로 다르며 대응 양상 또한 차이를 보인다. 중국의 성장 서사는 오랜 시간 동안 전통의 유제와 여러 가지 정치적 압박 속에서 성장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모와의 갈등, 성장자 자신의 내면의 고통들을 집단의 경험 속에 매몰시켰다. 성장의 기억을 개인에게 돌려주기 시작했던 1980년대의 선취에 힘입어 1990년대 성장 서사는 지나간 연대의 강박과 피로에서 벗어난 작가들의 다양한 시도 속에서 더욱 풍부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가랑비 속의 외침』은 친부모와 양부모에게 의도치 않은 '버려짐'을 당한 주인공의 심리적 고아의식을 보여주었고, 『성북지대』는 부재된 가족에게 염증을 느끼고 또래 집단 속에서 위안을 받는 아이들의 서로 다른 성장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는 동일시의 대상을 등장시킨다는 점에서 중국 성장소설의 주류적 서사와 구분된다. 개인의 성장은 그를 통해 진일보하고 결국 성장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성장소설의 모범사례로 여겨진다.

주제어 : 성장소설, 서사적 대응, 가족결핍, 고아의식, 조력자

1. 들어가는 글

성장소설은 18세기 후반 독일에서 시작된 문학 장르로서 자국의 문화적, 미학적 전통에 맞춰 사용한 개념이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 처음 소개되었고 90년대 이후 문학 장르로서 정착하게 되었다. 성장소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특질에 집중하여 ‘교육소설’로 칭해지기도 했다.¹⁾ 성장소설의 고유한 서사는 미숙하고 불완전하며 결핍된 존재가 성숙하고 완전하며 충족된 자아로 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하는 계기와 그 과정, 그 결과로 구조화된 유형적 특질을 가지고 있다.

한편, 자아의 성장은 자기 삶의 상관자로서 타자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대부분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가족 구성원은 자아가 만나게 되는 첫 번째의 타자로서 자아의 정체성 확립과 성장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²⁾ 아이가 자라면서 동일시의 대상을 찾을 때 그 첫 번째 모델이 부모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에 완전한 부모가 없다는 점에서 세상의 모든 부모는 비친하고 속악하다³⁾라는 사실은 아이와 부모는 언제라도 파열음을 낼 수 있는 험거운 관계임을 설명한다. 부모가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성인세대로 들어설 때 거치게 되는 통과 의례의 충격을 완충시키지도 못할 경우, 자신의 존재근거가 되었던 부모의 가치가 축소되면서 아이들이 받는 충격과 불안감은 증폭된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을 모색한다. 가장 빈번한 방법이 지금의 부모를 자기의 부모가 아니라 생각하고 다른 부모로 대체하는 것인데 이 또한 세상에 완전한 부모가 없다는 명제로 인해 대부분 실패로 끝난다.

(좋은)부모의 부재 혹은 그 기능과 역할의 결핍으로 인해 야기되는 갈등과 충동은 성장 서사를 이끄는 주요한 동력이다. 그러나 중국 성장소설에서

1) 張國龍·張燕玲, 「處于成長之中的中國“成長小說”」, 『南方文壇』, 2009年 第4期, 42쪽.
2) 선주원, 「환상적 공간을 통한 가족 서사의 재구성」, 『독서연구』 제35호, 2015, 166쪽.
3) 권명아 지음,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9, 27쪽.

성장의 당사자들은 오랫동안 전통의 유제와 정치적 압박 속에 부모와의 갈등을 표면화할 수 없었다. 중국에서 개인의 성장은 성장 주체의 개성이나 욕망의 표출이 아닌 군신부자, 삼강오륜 등의 사회적 대의를 실천하는 과정이었다. 아버지로 상징되는 사회질서와 가치체계의 습득이 우선시 되었다. 근대 이후 아이로서의 ‘소년’을 발견하긴 하였으나, 그들은 ‘구망과 구국’이라는 현실을 성인들과 같이 경험해야 했다. 신중국 성립 이후 아이들의 성장은 신중국의 성장과 동일시되었고, 성장자의 성장은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젊은 공화국의 성장으로 여겨졌다. 집단주의에서 벗어나고 개인의 발견이 가능했던 1980년대 중후반에서야 비로소 아이들의 성장에 관한 제대로 된 인식이 가능해졌다.⁴⁾ 집단 속에 매몰되었던 개인을 발견하고 ‘작은 어른’으로 여겨졌던 아이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서 그들의 심리적 혼란과 방황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선취에 힘입어 1990년대 이후 창작된 중국 성장소설에서 포착되는 중요한 징후 중 하나는 성장을 성장자 자신의 ‘개인사건’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성장서사는 문학과 정치의 오랜 밀착관계로 인해 개인의 성장통 보다는 국가의 성장통에 주목하였고 많은 성장서사의 주인공은 단지 국가의 성장통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⁵⁾ 개인의 성장은 국가의 성장과 동일시되거나 그 속에 매몰되었다. 문혁의 종결과 개혁개방의 천명, 새로운 문화적 감수성을 지닌 세대의 등장이라는 조건들은 이러한 고착된 관계를 해체하고 비교적 자유로운 개인의 성장에 귀 기울인다.

또 다른 징후의 일편은 현실의 구조적 유사성에 대한 인식을 주로 ‘상실’ 체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성장소설에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는⁶⁾는 특징과 연결 지을 때 더욱 의미심장하다. 1990년대 성장소설의 주요 작가들이 60년대 출생인 점에 미루어 짐작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특수한 역사경험으로 인해 동일시의 대상이 부재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가치체계의 붕괴, 무질서와

4) 趙曉芳, 『九十年代以來中國成長小說研究』,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3-4쪽.

5) 김경석, 「위화의 『18살에 떠나는 길』에 대한 성장소설적 독법—‘탈국가’의 성장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39집, 2015.6, 85쪽.

6) 鄒軍, 「『英格力士』里的成長探索」, 『安康學院學報』第28卷 第4期, 2016.8, 49쪽.

무사회의 현실과 과격한 정치구호가 난무했던 시절에 방치된 아이들은 동일시 할 수 있는 (좋은) 부모나 그를 대신할 다른 누구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동일시의 과정이 비록 실패가 전제된 것이라도 성인의 세계로 나아가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수한 현실적 제약은 그 실패의 고통을 배가시킨다. 그러나 비록 동일시의 대상을 찾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산상하향의 고통이나 집단기억의 낙인도 없기 때문에 개인의 성장을 성장 주체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⁷⁾ 때문에 성장에 관한 그들의 기억과 서사는 천편일률적이지도 않고 시대기억에 의해 은폐되지도 않은 채 성장에 동반되는 서로 다른 고통과 고민을 이야기하며 자신들만의 대응방법을 구축한다.

이에 본 글은 1990년대 이후 창작된 성장의 이야기를 담은 余華의 『在細雨中呼喊』(1993), 蘇童의 『城北地帶』(1994), 王剛의 『英格力士』(2004)⁸⁾ 세 편을 가족결핍에 대응하는 양상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소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인 결핍된 가족은 존재의 부재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 기능과 역할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결핍을 야기하는 원인은 작품마다 서로 다르며 대응 양상 또한 차이를 보인다. 『가랑비 속의 외침』은 친부모와 양부모에게 의도치 않은 ‘버려짐’을 당한 주인공의 심리적 고아의식을 보여주었고, 『성북지대』는 부재된 가족에게 염증을 느끼고 또래 집단 속에서 위안을 받는 아이들의 서로 다른 성장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는 동일시의 대상을 등장시킨다는 점에서 중국 성장소설의 주류적 서사와 구분된다. 개인의 성장은 그를 통해 진일보하고 결국 성장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성장소설의 모범사례로 여겨진다.⁹⁾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돌아온 성장의 기억과 경험의 서술이

7) 張國龍·張燕玲, 위 논문, 44쪽.

8) 余華, 『在細雨中呼喊』, 廣州: 花城出版社, 1993/ 蘇童, 『城北地帶』, 『鍾山』 1993, 4—1994, 4/ 王剛, 『英格力士』, 『當代』 2004年 第4期. 작품은 각각 위화, 최용만 역, 『가랑비 속의 외침』(문학동네, 2005)/ 쉰통, 송하진 역, 『성북지대』(비채, 2011)/ 왕강, 김양수 역,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푸른 숲, 2006)로 번역본이 있다. 본 글은 번역본을 저본으로 삼는다. 이하 작가와 작품명은 번역본을 따르며, 작품 인용시 작품명과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9) 徐秀明, 『20世紀中國成長小說研究』, 上海大學 博士學位論文, 2007, 72쪽.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작가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일이자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의 당대성을 드러낸다¹⁰⁾는 의견에 기댄다면, 소설이 구현한 다양한 성장 이야기의 면면을 살펴보려는 본 글의 작업은 현실과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 있었던 당대 중국작가들의 그 성패여부를 타진하고, 주관적 체험 세계가 중시되기 시작했던 역사 현실 속에서 변모된 작가들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II. 고아의식으로 인한 분열된 기억과 경험 — 위화, 『가랑비속의 외침』

《가랑비속의 외침》은 7살 때 도시의 양부 왕리치양(王立強)에게 입양되었던 쑨광린(孫光林)이 12살이 되어 자신의 고향인 남문(南門)으로 되돌아오면서 그의 기억을 거꾸로 더듬어간다. 이야기는 집으로 돌아온 그가 가족과 겪게 되는 갈등과 가족들의 죽음이 전개되는 동시에 어렸을 적 양부와 있었던 경험들이 혼재되어 흘러간다. 유년시절의 경험이 시간적 열개를 이루지 못하고 파편화된 채 나열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린 시절 버려졌다는 쑨광린 자신의 고아의식에 기인한 바 크다. 삼형제 중 둘째인 그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시로 입양되었다가 양부가 죽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 욕구들이 채워지지 못한 채 맞이하게 된 두 번의 ‘버려짐’으로 인해 아이는 가족이나 집단 그 어디에도 포용되지 못한 채 부유한다. 18세¹¹⁾가 되어 다시 고향을 떠나는 쑨광린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유

10) 정혜경, 「여성 성장소설에 나타난 가족서사의 재구성」, 『국제어문』 44호, 2008, 410쪽.

11) 위화의 소설에서 18살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작품으로는 「十八歲出門遠行」(1987), 「四月三日事件」(1987)이 있다. 이제 막 성인의 세계로 입문하는 그들은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성인세계로 나간다. 그러나 「十八歲出門遠行」에서 아이는 위선적이고 폭력적인 어른의 세계를 경험한다. 「四月三日事件」의 피해망상증을 앓고 있던 주인공은 자신을 둘러싼 공포와 불안의 세계를 벗어나 탈출을 감행하지만, 그 또한 작품 속 다른 18세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죽음을 짐작케 한다. 18세의 주인공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鮮血梅花」(1989)에는 비슷한 나이의 아이가 등장한다. 아이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무술을 연마하지만 다

년기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통합하는 냉정한 시선이 아니라 그 경험을 전경화 한다. 이제 성인의 세계로 들어서는 그에게 유년기는 여전히 억압의 기억과 치유되지 못한 상처로 얼룩져있다.

억압과 외상으로 남겨진 유년시절과 버려지고 방치되었다는 기아의식의 이면에는 왜곡된 가족관계가 있다. 썬광린의 기억 속에는 과부를 겁탈하고 무고한 자기를 나무에 묶어 때리는 추악하고 야만적인 아버지와 도시로 탈출하여 더 큰 권위를 얻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형, 그런 형의 거만함을 그대로 닮은 동생이 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입양생활이 시작된 것 같았다는 그의 고백¹²⁾은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 존재하는 그들을 보여준다.

가족으로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썬광린의 의식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이가 아버지 썬광차이(孫廣才)이다. 성장서사에서 대개 권위와 질서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아버지는 이 작품에서 조롱과 폄하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마을에서 온갖 추잡한 일을 다 하며 심지어 며느리 될 여자를 추행해 큰 아들에게 귀를 찢리는 수모를 받고도 그는 부끄러움을 모른다. 또한 막내 아들 썬광밍(孫光明)이 친구를 구하다 죽자 영웅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기 위해 마을 방송을 하라하고 그것으로 직업을 얻으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실패하자 아들이 구해낸 아이 집에 가서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찍이 입양으로 가족의 부재를 경험했던 썬광린은 (좋은)아버지의 부재를 통해 더 큰 성장의 공백을 가지게 된다. 작품은 이 공백의 고통을 아버지의 죽음을 희화화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표현한다.

어느 날 썬광차이는 술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입구 뚝뚝에 빠진다. 지나가던 나영감이 그곳에 빠진 것이 돼지 인줄 알고 끌어내 데려가지만 썬광차이임을 알고는 이에 분을 삭이지 못하고 그의 얼굴을 후려치면서 욕을 하며 그를 다시 그곳에 빠트려버린다. 그는 죽은 지 하루가 지나서야 발견된다.

른 사람이 먼저 복수를 해버리는 바람에 복수를 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 놓인다. 위화의 소설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자신을 규정할 무엇도 없이 무기력하고 불안하며 그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다.

- 12) “내가 열두 살이던 그해 왕립강이 죽은 후, 나 혼자 남문에 돌아왔을 때, 마치 또 다시 입양생활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그동안 나는 늘상 마치 왕립강과 이수영(李秀英)이 나의 진짜 부모이고 남문은 나에게 단지 버려진 집일 뿐 이라는 기이한 느낌이 있었다.” 『가랑비 속의 외침』, 17쪽.

다음 날 새벽 사람들에게 발견된 그의 육신은 하얀 벌레로 가득 뒤덮인 채 푹물에 떠다니고 있는 상태였다. 그는 가장 더러운 곳에 자신의 육신을 묻었지만 죽을 때 그 사실을 전혀 몰랐으니, 천수를 다하면서 자신의 업보를 편안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¹³⁾

쑨광린은 더러운 곳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아버지가 평안했을 것이라며 자기 기억 속에 매장시켜 버린다. 여기에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비애나 애도의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희화화는 부재된 가족으로 인해 쑨광린이 느꼈던 고통을 반증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죽음이 우스워질수록 그의 고통이 더욱 심각했음을 의미한다. 쑨광린의 고통은 어둠움과 두려움으로 채워져 있다. 어릴 때 집을 떠나기 전까지 그가 난면에 대해 가진 기억 또한 그것뿐이다.

1965년, 칠후 같은 어둠에 대한 한 아이의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시작된다. 나는 가랑비가 흠뻑리던 그날 밤을 떠올린다. 그때 난 이미 잠이 든 채로, 작고 캄캄한 인형처럼 침대에 눕혀 있었다. 처마 끝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더했지만, 잠결로 이내 사라져갔다. 바로 그때, 평온한 잠속으로 빠져들면서 아련한 길이 펼쳐지고 나무와 풀섶들이 이어 비켜 갈 무렵, 한 여인의 흐느끼는 듯한 외침이 아주 먼 곳으로부터 전해져왔다. 고요하기 그지없는 그날 밤 쉼 목소리의 외침은 지금,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나를 몸서리치게 한다.¹⁴⁾

아이의 기억 속에 잠재된 어둠에 대한 공포, 절규에 가까운 여인의 울음소리, 회답이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그 울음소리는 쑨광린의 어린시절을 잠식한다. 죽음의 희화화는 어린 나이에 부모와 분리되어 끊임없이 방황하는 소년이 가족과 관련된 상처를 변형시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쑨광린이 어린 시절 받았던 고통이 미숙한 주인공이 성숙해나가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통과의례¹⁵⁾라고 했을 때, 도시에 있는 양부모와 친구

13) 『가랑비 속의 외침』, 84쪽

14) 『가랑비 속의 외침』, 11쪽

귀칭(國慶), 쑤(蘇)씨 형제와의 만남은 통과의례를 거치고 난 이후 성장의 다른 단계로의 진입을 설명한다. 양부 왕리치양은 “어른으로서 모든 사랑을 준”사람이고 양모 리시우잉(李秀英)은 자애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어린 그를 보살핀다. 그러나 다혈질의 그와 병약하고 예민한 그녀의 잦은 싸움은 쑤광린에게 ‘따뜻하고 화목한’가족이라는 의식을 심어주지 못한다. 게다가 왕리치양은 2년여의 외도가 발각되자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진짜 부모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위선적인 행태에 쑤광린은 자신의 운명이 바꿨다고 고백한다. 어디에도 존재할 것 같지 않은 (좋은) 아버지와 가족의 모습은 그의 기억 속에 쑤씨 가족을 통해 구현된다.

쑤씨 형제는 집에서 나온 후 눈앞에 펼쳐진 정경에 펄쩍펄쩍 뛰며 환호했다. 그들은 즐거워하며 자전거를 향해 내달렸고, 그들의 어머니는 담벼락 앞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의사선생님은 두 아들을 태우고 논두렁 사이 좁은 길을 달렸다. 자전거에 탄 도시의 두 아이는 기쁨의 합성을 내질렀다. 앞에 탄 동생은 줄기차게 경적을 울려댔다. 이 모습은 마을 아이들에게 부러움의 극치였다.

고등학교 1학년인 열여섯 살 때 나는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단어를 이해해 보려고 시도했었다. 내가 南門의 집과 孫蕩의 王立強의 집 사이에서 한동안 망설이다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 장면에 대한 기억이다.¹⁶⁾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은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고통을 수반한다. 이 과정에서 고아의식이 발생하는데 쑤광린은 실제로 친부모에게서 떨어져 나와 입양되었기에 이런 의식은 더욱 첨예화된다. 난민의 쑤광차이에게도 도시의 왕리치양에게도 느끼지 못했던 아버지와 가족이라는 ‘의미’는 쑤씨 형제의 가족을 통해 대단히 이상화되어있다. 그러나 친근하고 자애로운 아버지상을 구현한 것 같은 형제의 아버지는 자신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큰아들 쑤위(蘇宇)가 아침에 뇌출혈로 쓰러져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으름을 피운다며 화를 내

15) 유옥, 『가족 결핍의 새로운 시선과 성장소설- 김애란의 『달려라, 아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1집, 2016.6, 217쪽.

16) 『가랑비 속의 외침』, 22쪽.

고 출근해버려 아들을 무관심 속에 죽게 만든다. 자신에게 결핍된 ‘화목하고 따뜻한’가족을 찾아 현실에서 불가능한 구원을 받고자 했던 그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끝난다.

고아의식에 갇힌 쑨광린은 자신이 가진 고통과 고민 대부분이 아버지에 게서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의 의식 속에 아버지는 타자화되거나 삭제된다. 소설 속 아버지들이 추악하거나 무능하며 ‘온전한’형태의 가족을 이루지 못한 이유도 그런 의식 속에 있는 쑨광린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억압과 증오의 대상인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아버지가 없는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지만 정작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 대한 우려와 공포를 드러내는 모순적인 구조에 갇혀있다.¹⁷⁾ 아버지에 대한 ‘나’의 증오는 결국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힘든 세월을 살아왔던 ‘나’자신에 대한 상처이자 서러움¹⁸⁾이다. 아버지의 죽음이 ‘자연스럽지’않은 정도를 통해 쑨광린이 받았던 슬픔과 고통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일종의 방어기제를 드러내는데, 곧 나를 버리고 간 나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결국 상처받은 나의 지난 세월을 부각하는 구실을 한다. 부재하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는 아버지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파괴하기도 하기 때문에¹⁹⁾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이 또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증오와 연민의 감정이 맞물리는 혼돈의 상황 속에 쑨광린은 그 어디에서도 자신의 생활세계를 찾지 못하고 방황한다.

양부가 죽고 고향으로 돌아온 쑨광린은 마치 버려진 집에 되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이는 가족에게서 받은 그의 고립무원의 절망감을 대신

17) 도시에서 만난 친구 귀칭은 이 상태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귀칭의 아버지는 재혼하면서 귀칭을 말 그대로 ‘버렸다’. 아버지를 찾아가지만 문전박대당하고 그로부터 스스로 알아서 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귀칭의 용돈을 관리하게 된 장청하이(張青海) 선생님이 귀칭이 잘못했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일러바치는 방식을 취하면서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얻은 듯 하지만 아버지가 여전히 감시하는 느낌을 지우지 못한다. 아버지로부터 구속받고 싶고 혼이 나고 싶어서 그의 집 근처에서 일부러 가로등을 깨지만 귀칭의 아버지는 “누가 네 아버지냐”라는 말로 귀칭을 다시 버린다.

18) 나병철, 『환상과 리얼리티』, 문예출판사, 2011, 411쪽.

19) 선주원, 앞의 논문, 165쪽.

한다. 작품의 말미 집으로 돌아오는 갈림길에서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손자, 그런 손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할아버지, 불이 난 집 앞에서 떨고 있는 형제와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은 익숙하지만 이미 낯선 공간이 되어버린 집과 서로에 대해 무감각하고 무반응한 가족을 보여준다. 그들은 썬광린의 생활세계와 희미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또 단절된 채 가장 익숙한 가족 속에서 가족을 잃어버리는 잔상을 남기고 있다.

Ⅲ. 일탈과 무기력에 휩싸인 소년들의 느슨한 연대—쑤통, 『성북지대』

소설의 시공간인 1970년대 성북지대는 공장이 밀집해 있어 늘 회색 먼지에 휩싸여 있다. 햇빛도 먼지에 가려 제 빛을 잃어버리는 이 공장지대 참죽 나무길에 사는 다성(達生), 찢룩이(小拐), 쉬더(敍德), 홍치(紅旗)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점 이외에 (좋은)아버지가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성의 아버지는 출근시간 다성이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 바람에 시원치 않은 황 노인의 자전거를 빌려 타고 가다가 트럭사고로 사망한다. 아버지의 죽음에 다성은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다. 도리어 남편이 죽은 후 자신에게 화풀이 하는 엄마에 대해 반감을 가질 뿐이다.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 되묻는 그에게 아버지의 죽음에 일조했다는 죄책감이나 어머니에 대한 감정적 이해를 찾아보기 힘들다. 찢룩이는 엄마가 없다. 태어나서부터 어머니가 없는 찢룩이는 모질고 포악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아이는 엄마를 아빠가 죽인 게 아닌지, 또 자신이 다리를 저는 게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정도로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린다.

쉬더는 온화한 성품의 아버지와 자식을 아끼는 어머니라는 이상적 가정을 가진 것처럼 묘사되지만 아빠는 아들의 내연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어머니는 이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 작품에 짧게 등장하는 홍치에게도 아버지는 없다. 부재되거나 지위와 역할이 결핍된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동일시의 대상이 되지도 못할뿐더러, 성인세계로의 입성 과정에서 겪게 되는

두려움을 완화시키지도 못한다. 동일시의 대상과 성장에 대한 두려움이 부재된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세계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별반 다른 없는 익숙한 것이며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도 않는 날들의 연속일 뿐이다. 때문에 아이들의 일상은 무료함과 지루함으로 점철되어 있다.

“정말 이상해. 물이 그렇게 더러운데, 그래도 물에 들어가 수영하는 게 좋아?”

“수영 안 하면 뭘 해?”

홍치는 벌써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고개를 돌려 메이치에게 반문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심심해 죽겠는데 수영이라도 안 하면 뭘 하라고?”²⁰⁾

“씨×, 설인데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설이 왜 이렇게 점점 따분해지는 거냐?”²¹⁾

현실의 무료함과 무기력함을 견디기 위해 아이들은 각자의 ‘놀이’를 개발한다. 다성은 샌드백을 치면서 몸을 만들고 무술을 연마해 마을에서 일인자가 되고자 한다. 쩌룩이는 도둑질로 삶의 즐거움을 찾는다. 쉬더는 학교를 벗어나 병 세척 공장에서 일하고 유부녀 진란(金蘭)을 만나면서 삶의 활력을 찾는다. 다성을 제외한 쩌룩이와 쉬더의 행위는 ‘놀이’ 차원을 넘어 사회적 통념이 제한한 금기를 넘어서는 행위이지만, 그들에게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 아이들은 자신들만의 연대인 일탈을 통해 현실의 무료함을 떨쳐내고 압담함을 이겨낸다. 소설은 그들의 일탈행위가 아이들이 저지러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어른들의 속악한 행위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부모세대의 이야기와 겹쳐 그려내고 있다.²²⁾

20) 『성북지대』, 42쪽.

21) 『성북지대』, 220쪽.

22) 『성북지대』는 막 성인들의 세계로 입문하려는 아이들의 일탈과 방향만큼 그들의 부모 이야기도 비중 있게 다룬다. 이는 아이들이 심리적인 가족의 부재를 겪게 된 내력을 설명하는 동시에 부조리하며 위악적인 어른들의 세계를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아이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근거를 일정정도 마련한다. 다성의 엄마 텡핑(騰風)은 뱀꾼의 딸로 아버지를 따라 독사 공연을 하며 떠돌다가 참죽나무

소설은 심리적인 아버지의 부재상황이 가족과의 결별로 이어지며 결국 해체상황에 이르고 있음을 알려준다. 주인공들은 가족과 아버지로부터 결별하면서 고아적 무의식을 갖게 된다.²³⁾ 어른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 고아적 무의식에 대응하는 방법은 그들만의 연대인 폭력적인 범죄이다. 다성이 학교에 가지 않고 무술고수를 찾아가거나 짬뽕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 등은 그 나이 때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일탈행위로 이해 가능하다. 그러나 아이들의 행동은 이에서 더 나아가 위험한 상상력과 실행력을 겸비한 채 범죄행위로 이어지며 속악한 어른들의 세계에 편승한다. 『성북지대』가 인지하는 어른들의 세계는 아래와 같이 일갈된다.

“남자애들은 크면서 따로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두 가지 있어. 하나는 바로 여자 다루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방화하고 살인하는 거야.”²⁴⁾

짬뽕이는 대장간에서 기르는 개를 훔쳐 죽이고 가족을 팔아 번다는 이야

거리 다리 아래 정착하게 되었고 다성의 아버지는 이 곳 공연의 첫 번째 관객이었다. 텅평의 아버지는 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돈 2백 위안에 딸을 그에게 팔아넘기고 떠나버린다. 16살 텅평이 맞이하게 된 남편은 “짐승같은 놈”이었고 그에게서 도망치려 했지만 아들 다성을 낳고 정착한다. 남편이 죽자 석탄공장에 다니며 다성을 건사하고 있지만 삶의 고단함과 무거움을 아들에게 풀 수밖에 없다. 다성의 절친 쉬더의 아버지 선팅평은 아들의 내연녀 진란(金蘭)과의 불륜행각이 짬뽕이의 아버지에게 의해 발각되자 그는 자신의 혼자 된 누나를 소개시켜 준다는 식으로 입막음을 하려 한다. 결국 교화대상으로 낙인찍힌 채 운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행동을 통해 마을의 웃음거리로 전락한다. 짬뽕이의 아버지 왕덕지(王德基)는 가족들에게 모질다. 폭력으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며, 집안일도 하지 않고 남자를 만나러 나가는 딸에게 화가나 대문을 잠겨버려 이후 딸이 성폭행 후 살해당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또한 선팅평의 불륜을 눈감아주는 대신 그의 누이를 소개받기로 했지만 그것이 봉변을 면하려는 속임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일생동안 선팅평을 저주한다.

- 23) 나병철,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 문예출판사, 2004, 456쪽. 심리적 고아의식은 아버지에게로부터 버려졌던 다성의 엄마 텅평에게도 존재한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을 알고 기절했다가 다성이 그 사람이 진짜 자신의 할아버지였다고 묻자 “나는 원래부터 고아였다”고 말한다.
- 24) 『성북지대』, 156쪽.

기를 무용담처럼 한다. 사람도 죽이는데 개 한 마리 죽인 것이 뭐 대수냐고 도리어 화를 내는 그에게 도둑질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도 찾을 수 없다. 심지어 학교에서조차 제적생이 넘쳐나자 찢룩이의 행위를 ‘소소한 도둑질’이라며 복학을 종용한다. 낚시꾼 골목에 사는 키 크고 마른 소년 홍치는 이웃 집 여자아이 메이치(美琦)를 성폭행한다. 그는 찢룩이와 달리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만 재판 이후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을 빼내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이라며 엄마를 협박한다. 홍치의 엄마는 아들의 죄를 자살한 메이치에게 덮어씌워 아들을 빼내려한다. 쉬더는 아버지가 자신이 사귀고 있는 진란과 잤다는 이야기를 듣고 적개심에 칼을 들고 아버지에게 덤빈다. 어머니의 제지를 받고 이에 칼을 들고 진란을 찾아가는데 다성은 누굴 죽여야 하는지 말한다.

“여자는 죽여서 뭐하게? 차라리 남편 주씨를 죽이는 게 어때?”

“주씨는 날 열받게 한 적 없어.” 쉬더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널 열받게 한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을 죽여야겠네.” 다성이 말했다.

“열받게 한 건 우리 아버지. 그렇다고 아빨 죽일 순 없잖아?” 쉬더가 말했다.

다성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그게 뭐 어떻다고? 열받게 했음 아 빠고 뭐고 죽여야지.”²⁵⁾

아빠라서 죽일 수 없다는 쉬더와 아빠라도 죽일 수 있다는 다성의 다른 생각은 아버지의 존재유무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부족하나마 동일시의 대상이 있었던 쉬더는 설령 아버지에게 욕은 할 수 있어도 죽일 수는 없다는 입장인 반면,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아버지 죽음에 대한 죄의식을 강요받았던 다성은 아버지로 상징되는 사회적 윤리 혹은 질서체계를 수용하지 못한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억압되고 죽은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다성은 심리적 고아상태에 놓여있다. 다성을 위시한 쉬더와 찢룩이가 벌이는 일탈과 범죄행위는 이와 같은 고아상태를 벗어나고 어

25) 『성북지대』, 157쪽.

른들의 세계로 나가기 위한 일종의 통과의례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의 일탈은 일종의 반복강박에 의한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외상을 준 고통스러운 경험을 반복하는 가운데 억눌린 소망을 기억해내는 행위이다.²⁶⁾ 또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위치를 옮겨 간다는 측면에서 대상에게 복수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홍치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한 메이치는 환영으로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죄의식을 일깨운다.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는 다성이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원망에 시달렸던 다성은 메이치의 꿈을 꾸면서 동정을 하고 성복의 제 일인자가 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한편 마치 자신이 그녀를 죽인 것 같은 죄의식을 느낀다. 이에 내면에 잠재되어 있었던 아버지의 죽음에 일조했다는 죄책감이 겹쳐지면서 그는 비로소 내면에 억압된 소망을 드러낸다.

“자명종”다성이 말했다. “자명종이 저 꼭대기에 있어. 내 대신 그것 좀 우리 집에 갖다 줘. 우리 엄마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알람 들어가야 해.”²⁷⁾

성복의 일인자가 되고자 했던 다성은 구두장이길의 돼지머리파와 10대 1로 싸우다가 쓰러지고, 상대파 우두머리에게 자신이 가지고 온 자명종을 집에 가져다 달라는 말을 남긴다. 폭력과 일탈로 하루하루를 지냈지만, 그 이면에는 아버지 죽음에 대한 죄의식에 시달렸고 엄마와의 화해를 강력히 바라고 있었다. 이 갈증을 채우지도, 미쳐 어른이 되지도 못한 채 다성은 죽음을 맞이한다.

아버지가 자신의 연애상대인 진란과 같이 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를 뿌리치지 못하고 태어난 아기와 함께 진란의 고향으로 떠나는 쉬더의 행동은 일견 작품에서 서술한 바대로 태어나서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기차를 타고 싶었기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동일시의 대상으로 기능하지 못했던 아버지와 결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달리는 기차에서 집 역표를 던져버린 것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자 태어난 아이에게 동일시의 대상으로 존재하고자 하

26) 나병철, 앞의 책, 459쪽

27) 『성복지대』, 390쪽.

는 소망의 발현으로 읽힌다.

반면 짚룩이는 마을의 국민당 스파이인 폐지 줍는 강(康)씨를 밀고하면서 “혁명 열사”가 된다. 강씨는 이야기 속에서 옛 것을 되새기고 인륜을 이야기하는 유일한 인물이다. 텅팡이 아버지를 쫓아냈을 때 그를 다리 밑 굴로 인도한 사람도 그였다. 그가 국민당의 옛 무기를 숨겼다는 죄명으로 잡혔다는 것은 행위의 사실 여부를 떠나 한 세대의 몰락을 의미한다. 사람의 도리를 알고 과거에서 현재를 반추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세대가 저물면서 ‘그렇지 않은’ 현실을 극복하기는 더욱 요원해 보인다. 세대의 몰락을 부추기며 짚룩이는 의도적으로 다성과 쉬터를 멀리한다. 절름발이고 도둑이라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멸을 받던 아이는 스스로 이렇게 환대받고자 했던 갈증을 풀어버린다.

채워지지 않았던 내면의 소망과 억눌렸던 욕구들이 채워지면서 이들의 연대는 해체된다. 성장의 계기이자 동력이었지만, 사실 그들의 연대는 언제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작별할 수 있는 ‘느슨한’ 관계²⁸⁾ 였다. 무기력한 개체는 강력한 연대의식 속에서 활기를 찾을 수 있지만 온전한 개별자로서의 성숙은 기대하기 어렵다. 때문에 어른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혼자가 되어야²⁹⁾ 비로소 가능한 여정이라 할 수 있다.

IV. 조력자를 통한 환멸적 삶의 극복 — 왕강, 『오, 나의 잉글리시 보이』

문혁시기 소년의 성장기인 『오 나의 잉글리시 보이』는 성장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가족 로망스의 구도를 충실히 따른다. 가족 로망스는 어린아이가 자아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모와의 관계 맺기와 자기 찾기의 특성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작업이 부모와의 동일시인데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길

28) 정혜경, 「여성 성장소설에 나타난 가족서사의 재구성」, 『국제어문』 44호, 2008, 423쪽.

29) 나병철, 앞의 책, 460쪽.

때 가족로망스는 발생한다.³⁰⁾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부모가 자신의 진짜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모임을 부정하고 싶을 때, 아이는 허구적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혹은 상상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려 하기도 하고 자신의 부모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흔히 가족 내 아버지는 강력한 규율과 통제를 통한 사회 질서를 상징한다. 아이들은 이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성장과 독립을 이루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설의 주인공 류아이(劉愛)도 이와 같은 여정에 있다. 그는 스스로 변방이라고 부르는 우루무치에 사는 13세의 소년으로, 그 나이 때 남아아이들이 가지는 자유분방함이나 짓궂음 대신 고독하고 예민한 성격을 가졌다. 우루무치가 고독한 것인지, 내가 고독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아이는 ‘사랑’을 뜻하는 자신의 이름도 가식적이라 생각하는 혼란 가운데 있다. 학교에서 위구르어 시간이 없어지고 영어시간이 생긴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남학생들은 우루무치 최고의 미녀인 위구르어 선생 아지타이와의 이별 때문에 슬퍼할 뿐, 언어 자체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류아이는 어찌하여 위구르어 시간이 없어지고 영어라는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감을 나타낸다. 이 반감은 왕야권(王亞軍)이라는 영어선생을 만나는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와의 수업을 통해 자신이 언어습득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영어에 대한 흥미 또한 깊어진다. 이에 더하여 왕야권과 사제지간을 넘어서 ‘忘年交’의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문혁이라는 시대의 광풍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체험하면서 성장해나간다.

가식적인 자신의 이름에 실망하고 자신이 느끼는 고독의 출처 또한 알 길이 없는 류아이는 뺨을 맞는 아버지를 통해 문혁을 직접적으로 경험한다. 세상 누구보다 훌륭하고 위대했던 건축가 아버지는 마오주석의 초상화에 오른쪽 귀를 그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范)주임에게 뺨을 맞았다. 투시도 법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당내 사람들에게는 반동행위로 여겨질 뿐 아버지의 미술에 대한 깊은 조예는 통하지 않았다. 아이 앞에서도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당내 간부들과 이에 저항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폭력을 감내하는 아버지는 어른들 세계의 부조리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류아이가 기억하

30) 권명아 지음, 앞의 책, 140쪽.

는 문혁에 대한 상징적 장면을 연출한다.

자기애가 넘쳤던 만큼 가족에 대한 사랑 또한 가득했던 아버지는 문혁기간 내내 당내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게 되면서 아들과도 마찰이 생긴다. 그는 영어선생인 왕야권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해야한다며 아들의 뺨을 때린다. 자신의 위대함을 설파하는 아버지에게 대해 류아이는 지겨움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갖는다. 수소폭탄공장을 지으러 떠난 아버지가 해방군복을 입고 삼 개월 만에 돌아오는 장면에서 이 감정은 뚜렷해진다.

아빠는 학교 밖 대로를 따라 이쪽으로 걸어오다가 창문을 한번 힐끗 쳐다보았다. 아빠가 나를 보았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잔해졌다. 삼 개월 이 넘도록 나는 아빠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아빠는 나를 본 게 아니었다. 별 생각 없이 이쪽을 한 번 쳐다본 것뿐이었다. 황쉬성이 말했다.

“너 왜 안 불러. 그냥 지나쳐버리지않아.”

나는 끝까지 아빠를 부르지 않았다. 아빠와 마주 보고 있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³¹⁾

그러나 이런 양가적 감정은 류아이가 군복을 잃어버린 사건으로 종결되고 이 둘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는다. 당시에 군복은 ‘선진’과 ‘신분’을 나타내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류아이가 잠깐의 실수로 세탁하고 넣어놓았던 군복을 잃어버린 것이다. 아버지는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슬프지 않았다”며 류아이를 때리고 엄마 또한 원망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다. 이 상황에 마치 그들의 적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류아이는 가출을 감행한다.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시작된 이 방황은 무기력한 아버지와 부권에 대한 반항을 의미한다. 작품에서 무력한 아버지는 외부의 폭력적 상황에 휩쓸린 결과이다. 문혁의 와중에 잃어버린 선량한 아버지의 자리에는 당의 명령에 복종하고 현실에 굴복하는 것을 삶의 원리로 삼아버린 속악한 아버지가 있다.

좋은 아버지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어머니와의 관계 또한 왜곡되기 마련이다. 류아이가 화장실에 ‘마오주석 타도’라는 글을 썼다는 누명을 쓰자 교

31)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 171쪽.

장은 류아이의 아버지에게 찾아가 당신이 시킨 거냐고 묻는다. 류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남편에게 엄마는 증오심을 품는다. 그리고 교장과의 하룻밤으로 일을 처리한다. 이후로 엄마는 자아도취에 빠져 현실도피적인 남편에 대한 경멸과 증오를 품고 혁명의 완수라는 당의 명령에 복종하며 우루무치 최고의 건축물인 방공호 설계에 집착한다. 우루무치 대극장을 짓고 예술의 감동을 알던 아버지는 파괴를 상징하는 폭탄공장을 만들고, 어머니는 파괴에 대비하는 방공호를 만드는 모순적인 행태는 문혁시기 일상의 삶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넘쳤던 가족은 문혁으로 인해 반목과 갈등을 계속한다. 또한 선한 아버지는 권력의 곁에서 맴돌고 타인의 불행에 대해 기쁨을 느끼는 위악적인 인간이 되었다. 류아이의 이웃이자 같은 반 친구인 황취성(黃旭升)의 아버지가 자살했을 때 류아이의 아버지의 언행은 이를 잘 보여준다. 황의 아버지는 공산당을 색출하던 국민당 군인출신으로 공산당의 명령과 압박에 불복하고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류아이의 아버지는 “그 친구는 무릎을 꿇지 않았어. 무릎을 꿇으려면 꿇어야지”라며 그의 죽음을 정당화하거나 진작에 죽었어야 한다며 악담을 퍼붓는다. 이웃이 죽었는데 게걸스럽게 밥을 먹는 부모를 류아이는 이해할 수 없다.

엄마, 아빠의 반응은 나를 놀라게 했다. 다른 집에서는 사람이 죽었는데, 왜 엄마, 아빠는 명절을 쇠는 것같이 즐거워하는 걸까? 나는 단지 조금 흥분했을 뿐인데, 왜 그들은 희열을 느끼는 거지? 황취성은 조금 전에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황취성은 엄마가 세련되고 친절하다고 했는데.

나는 나중에서야 비로소 부모님의 이런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걸 깨달았다. 새로운 세기가 도래했을 때, 내 속에 모종의 악한 품성이 꿈틀대고 있음을 발견했다. 비록 나 스스로 그것을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설령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가능한 한 회피하려고 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내 마음이 가벼워지곤 하는 심리는 어쩔 수가 없었다.³²⁾

32)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 65쪽.

성장한다는 여러 의미 가운데 하나는 타인을 자신의 시선 안에 둔다는 것이다. 나의 삶에 연계되어 있는 타인의 삶에도 눈을 돌릴 수 있을 때 성장의 한 단계를 넘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동일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부모인데, 류아이의 경우 자기도 모르게 닮아버린 부모의 위악적인 성향을 부정하지 못한다. 부모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최선의 상황을 만들려 노력하지만 문혁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그들의 지위와 역할에 공백을 만들어 놓는다.

선한 부모를 잃은 자리에 그와 등가물로서 사회적 차원에서 구체화된 것은 마오주의의 이상화와 공산주의 혁명의 완성이었다. 문혁이나 문혁 전후의 상황이 비참한 것은 선한 부모를 잃었는데 속악한 그들에 대해 반항할 힘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성장소설에서 나쁜 아버지에 대한 반항은 변혁의 소망이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³³⁾ 반항도 불가능하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고통스러운 패배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류아이에게 왕야권은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정향을 가능케 하는 조력자로 기능한다.

현실의 불안과 무기력함은 강력한 ‘상상적 아버지’를 부른다. 작품 속에서 현실의 나약한 부모를 부정하고 나를 찾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준거들은 영어이다. 가족, 학교, 친구 등 류아이를 구성하는 주요한 준거점들이 자신을 강력하고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시키고 불안하게 만든다고 느끼는 당시, 영어는 무기력하고 나약한 지금의 내가 아닌 ‘원래’의 나를 찾아줄 수 있는 매개물로 작용한다.

절망에 빠진 아이는 무서울 정도로 사나워진다. 요즘 같았으면 마약을 했거나 갑자기 집을 나갔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우드스탁에 가서 로커들을 만나 반항심에 가득 차 엄마를 찢고, 할머니를 찢고, 지도자 동지를 찢고, 사서오경(四書五經)을 찢고, TV를 찢고, BMW를 찢고, 고급빌라를 찢고, 은행 대출을 찢는 식의 가사를 썼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찢을 대상만 있으면 마음대로 찢어댔으니까. 그러나 당시 아이들은 달랐다. 사회적 분위기가 절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았다. 아이는 억압을 받는 자에 속했고 극단적인 공포를 느낄 뿐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공포 속에서 나는 영어와 향수를 발견했던 것이다. 아무것이나 마음대로 찢어댄다는 건

33) 나병철, 앞의 책, 437쪽.

너무 사치스러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다.³⁴⁾

류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달리 영어에 심취하고 영어를 가르치는 왕야권과 깊은 유대감을 가지며 세상의 모든 단어가 담긴 영어사전에 심취했던 것은 절망에 빠진 아이가 현실을 극복하고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이다. 동일시의 대상이 부모가 되지 못할 때 아이는 상상을 통해 자신의 ‘진짜’ 아버지를 만들고 그를 닮아가고자 애쓴다. 왕야권은 그런 의미에서 류아이의 ‘상상적 아버지’로 기능하며 그의 온전한 인격적 성장을 돕는다.

사실 작품에서 왕야권은 그다지 입체적인 인물은 아니다. 그는 상하이 출신의 지식인으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문혁시기 우루무치로 하방된 인사로 추측된다. 다른 등장인물들이 생활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 다른 성격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그는 갖은 모함과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시종일관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이상적인 교육자로 그려진다. 그는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려 류아이가 아지타이의 목욕장면을 훔쳐보고 자위행위에 심취할 때 유일하게 그의 초취함을 알아주었고, 지적인 갈망을 채우기 위해 영어사전을 훔치는 그의 일탈행위에서 조차 그 또한 어른이 돼가는 과정임을 일깨우면서 류아이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게다가 늘 향수를 뿌리고 말끔한 옷차림을 유지하는 그는 문혁이라는 엄혹한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운 인물³⁵⁾처럼 여겨진다.

류아이는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있는 영어를 가르치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³⁶⁾인 영어사전을 가지고 있으며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인 왕야권을 닮아간다. 류아이의 성장은 문혁으로 인한 좋은 부모와의 상실체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부재된 자리에 들어온 왕야권은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34)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 319쪽.

35) 孫希娟, 『關於成長的敘事—解讀王剛長篇小說《英格力士》』, 『小說評論』, 2007年6期, 82쪽.

36) “사람들의 말은 모두 단어로 되어 있고, 영어사전에는 무궁무진한 단어가 실려 있다. 위대한 사람의 사상도 모두 사전에서 나왔다. 그들의 사상이 사전에 있는 단어를 새로 배열하고 조합하는 데서 나왔기 때문에 사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며 성경만큼 중요하다.”,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 320쪽.

현실에 부재하는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는 왕야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진짜 아버지는 될 수 없다. 허구적인 아버지에 대한 동경이 깊어질수록 실제적이고 비천한 아버지와의 괴리는 깊어지며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의 아버지를 부정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가족로망스는 결국 현실의 아버지를 높이는³⁷⁾ 행위라고 할 때, 그 종점에는 그런 아버지와의 화해가 남겨져 있다. 문혁이 끝나가는 것처럼 류아이의 가족로망스도 끝을 향해 나간다. 왕야권을 ‘상상적 아버지’로 삼을 수 있었던 감정적 근거를 아버지에게서도 발견했기 때문이다. 왕야권이 예전에 가르쳐주었던 팝송 〈moon river〉를 듣고 있던 류아이에게 아버지는 이 노래 가사를 해석해준다.

지금까지 아빠가 이렇게 멋져 보인 적은 없었다. 아빠의 영어발음은 아주 훌륭했다. 아빠는 그야말로 진정한 예술인이었으며, 어쩌면 또 한 명의 왕야권이었는데도 모르겠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이야기해줬으니까.³⁸⁾

혼돈의 시기 방황하던 류아이를 세심하게 바라보며 필요를 채워주었던 왕야권은 이 팝송을 가르쳐준 적이 있었는데, 류아이의 부모는 ‘쁘띠 부르주아의 퇴폐적 낭만’을 심어준다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시종일관 왕야권과 갈등을 빚고 반목했던 아버지는 류아이에게 〈moon river〉의 가사를 해석해주는 것으로 왕야권에게 사죄하며 자신이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란 기회주의자였음을 고백한다. 류아이는 아버지의 진심과 마주하며 그의 참회를 받아드리는 것으로 아버지가 보내온 세월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세월 위에 자신이 있음을 깨달은 그는 아버지와의 화해를 이루며 왕야권을 이어 우루무치의 영어교사가 된다. 그리고 무고하게 감옥에 끌려갔던 ‘상상적 아버지’인 왕야권과도 해후한다. 성인이 된 이후 지나온 자리에 남겨진 ‘두 아버지’는 어른들의 위악적이고 환멸적인 세계에 대한 불안과 공포, 무기력함에 대한 극복을 가능하게 하

37) 권명아, 앞의 책, 26-27쪽 참조.

38)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 499쪽.

며, 문혁이라는 산산 조각난 현실에 직면해 구원의 탈출구를 찾고 있던 류 아이에게 강력하고 안정된 기반이 되었다.

V. 나오는 글

인간의 성장과정에 있어 가장 먼저 접하는 부모는 다양한 본능적 정서적 욕구들을 충족시키고 동일시의 대상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결핍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가족 간 갈등과 충돌을 반복하면서 그들은 동일시의 대상에서 부정의 대상으로 변질된다. 앞서 살펴본 세 작품은 대부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고아의식을 가진 주인공들의 서사로 이해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경험하는 가족의 부재가 가족의 정체성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거나 해체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은 다양한 대응방식을 마련하면서 성장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가랑비 속의 외침』의 주인공 썬광린은 고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부정하면서 이상적 아버지를 찾아 헤매지만 그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한다. 때문에 그의 성장은 하나의 온전한 이야기를 만들지 못하고 분절된 기억 속을 오갈 뿐이다.

방화와 살인, 도둑질이 빈번한 우범지대에서 살아가는 『성북지대』의 아이들에게서 아름다움이나 온화함의 정조를 찾아보기 힘들다. 흔히 성장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미답의 영역인 어른들의 세계를 호기심과 두려움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 작품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그곳이 위선적이고 환멸적인 세계임을 이미 알고 있다. 세상의 억압을 일찌감치 현실에서 경험한 아이들은 일탈과 범죄행위를 통해 억눌렸던 감정의 해방을 경험한다.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는 문혁시기 잔인하고 폭력적인 경험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왕야전과 류아이를 둘러싼 굴곡진 인간관계를 통한 내면의 성장과정에 집중해 이전 성장소설에 없었던 조력자의 역할을 부각시킨다. 개인의 다양한 성장 경험을 국가와 분리된 사적 체험으로 인식하고 주인공의 주제적 성장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성장 당사자의 자발적

성장이라는 성장소설의 본질적 의미를 체현하고 있다.

성장 소설 속에 나타나는 부조리하고 환멸적인 (어른들의) 현실과 그 현실에 대응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1990년대 중국문학이 지나간 자리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관한 의미 있는 징후를 보여준다.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에서 다뤄지는 문혁시기 사회의 특징적인 경험은 주인공 자신의 내면의 상처이자 역사적 현실이다. 이 이행과정이 가능하려면 감정적으로나마 그 상처를 봉합해야만 가능한데, 그 중요한 전제가 상처의 기억을 전면적으로 서사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문혁 종결 이후 등장한 상흔 문학이나 반사문학이 미흡하나마 그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면, 개혁개방의 전면화에 따른 자본주의의 유입, 그로 인한 사회 기조와 분위기의 전면적인 전환, 그리고 정치적 억압에 의해 유지되었던 현실이 다소나마 완화되면서 비로소 성장경험을 직시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이야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성장서사는 특수한 세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유통기한이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세대를 사로잡은 부재된 가족의 경험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그 이면의 공포, 희미해진 집단경험 등의 조건은 국가의 기억 속에 잠식당했던 개인의 정서 체험과 사적 영역을 들춰낸다. 이미 이전 시기 선취가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의 문학이 재현하고자 하는 현실은 역사 현실 전체를 조망할 필요가 없는 개인의 시선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관적 세계를 열어놓았다. 성장의 기억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이와 같은 서사는 지나간 연대의 강박과 피로에서 벗어난 작가들의 다양한 시도 속에서 더욱 풍부한 함의를 지닌다.

■ 참고문헌

- 권명아 지음,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9.
- 김경석, 「위화의 『18살에 떠나는 길』에 대한 성장소설적 독법—‘탈국가’의 성장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39집, 2015.6.
- 나병철,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 문예출판사, 2004.
- _____, 『환상과 리얼리티』, 문예출판사, 2011.
- 선주원, 「환상적 공간을 통한 가족 서사의 재구성」, 『독서연구』 제35호, 2015.
- 쑤통 지음, 송하진 역, 『성북지대』, 비채, 2011.
- 왕강 지음, 김양수 역, 『오, 나의 잉글리쉬 보이』, 푸른 숲, 2006.
- 위화 지음, 최용만 역, 『가랑비 속의 외침』, 문학동네, 2005.
- 정혜경, 「여성 성장소설에 나타난 가족서사의 재구성」, 『국제어문』 44호, 2008.
- 허병식, 「성장의 서사와 글쓰기의 소명」, 『문학 史학 철학』 창간호(통권 8호), 2007.
- 홍혜원, 「가족로망스와 성장- 이승우의 『생의 이면』 연구」, 『인문학연구』 통권 95호, 2014.6.
- 徐秀明, 『20世纪中国成长小说研究』, 上海大学 博士學位論文, 2007.
- 蘇童, 『城北地帶』,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2004.
- 孫希娟, 『关于成长的叙事——解读王刚长篇小说《英格力士》』, 『小说评论』, 2007年 6期.
- 楊庆香, 『此间的少年—《麦田里的守望者》與《城北地帶》比较』, 『昆明学院学报』, 2012年 2期.
- 余華, 『在細雨中呼喊』,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2004.
- 王剛, 『英格力士』,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4.
- 張國龍, 張燕玲, 「處於成長之中的中國 “成長小說”」, 『南方文壇』 2009年 第4期.
- 趙曉芳, 『九十年代以來中國成長小說研究』,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 鄒軍, 「《英格力士》里的成長探索」, 『安康學院學報』 第28卷 第4期, 2016.8.

❖ ABSTRACT

A Study on Narrative Response to the Lack of Family in the Chinese Contemporary Growth Novel After the 1990s

Kim, Bong-yeon

This paper focuses on three novels that reflect absence of family. Conflicts caused by absence of parents or lack of function and role of parents were principle drivers fueling growth novels. In Chinese growth novels, children in a long-standing tradition of emulsion and political pressure were unable to express their conflict with parents. Out of the collective interest and only until the late 1980s, which can be found of the individuals were able to fully appreciate the growth of children. Since the late 1990s, the creative individual cases to the growth is an important point of Chinese growth. Due to a close relationship of the literature and politics further noteworthy that the growth of state for personal growth for China's growth. Reform and opening up the end of the Cultural Revolution, the emergence of new generation of cultural sensitivity with a relatively free personal attention to the growth of the chance that can be.

In this paper, created since the 1990s, the growth of the stories of yuhua (余華)'s 『*Cry in the Rain*』(『在細雨中呼喊』), sutong(蘇童)'s 『*The Northern Part of the City*』(『城北地帶』), wanggang(王剛)'s 『*English*』(『英格力士』), going to go through by focusing on how to respond in the lack of family.

『*Cry in the Rain*』 shows that a consciousness orphan child abandoned main actors 'consciousness from his birth parents and adoptive parents. 『*The Northern Part of the City*』 chronicles different growth stories of children who experienced a void because of their absent families and found comfort in peer groups. 『*English*』 is distinguished from the mainstream narrative of

Chinese growth in terms of creating a role model. Individual growth through the role model in that it will eventually establish their own identities and further growth. Because of that, this novel is considered best practices of Chinese growth novels. This kind of narrative, which returns to the memory of the growth of growth, has a richer connotation amid various attempts by writers out of the past era of obsession and fatigue.

Key Words : growth novel, narrative response, lack of family, consciousness of an orphan child, role model

■ 논문접수일 : 2017. 5. 10

■ 심사완료일 : 2017. 5. 31

■ 게재확정일 : 2017. 6. 2